인천시, 5개년 시민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자연재난·도시경쟁력 증진 등 3대 전략 추진

폭염저감시설 설치·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개년에 걸쳐 추진할 「인천시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재난 유형의 다양화, 복잡화, 재난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대응하고자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인천형 중장기 안전대책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지난 5년간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현황, 언론 보도, 전문가와 실무자의 미래위험도 평가를 종합 분석해 자연재난 분야에서 ①폭염, ②풍수해, ③대설·한파,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 ④화재·폭발, ⑤감염병, ⑥도로교통 재난·사고 등 6대 중점 관리재난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신종재난 대응, 지역안전지수 향상,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로서의 국제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번 안전도시 기본계획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2027년까지 △폭염 부상자수 감소(61명→1명), △풍수해 재산피해 감소(39억7백만원→1백만원), △대설·한파 인명피해 제로화(10명→0명), △화재·폭발 사망자수 제로화(11명→0명), △감염병 사망자수 제로화(27명→0명), △도로교통 재난·사고 사망자수 감소(93명→54명), △지역안전지수 중 생활안전지수 향상(5등급→2등급) 등의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도시경쟁력 증진 등 3대 전략을 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연재난 안전관리는 △(폭염) 폭염저감시설 설치·운영, △(풍수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초강풍 대비 안전대책 추진, △(대설·한파) 자동제설장치 설치·운영 등을 추진한다.

둘째,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은 △(화재·폭발) 전통시장 화재 예방 환경조성,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제2인천의료원 설치,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도로교통 재난·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개선, 교통안전 시설 및 문화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셋째,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신종재난대응) ICT 기반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지진 안전도시 만들기, 알기 쉬운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산, △(지역안전지수) 관계 기관 간 태스크포스(TF) 구성, 핵심지표 분석 및 관리 등을 통해 2027년까지 2등급으로 향상, △(국제협력) 재난안전 선진도시 및 국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재난 복원력 허브도시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안전지수 중 생활안전지수는 지난해 5등급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것을 2027년까지 2등급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낙상, 상해, 열상 등 생활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우선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난 약자가 많은 지역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회복력 있는 초일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난안전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및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사진: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시교육감, 은하수학교 사제동행 간담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인천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성공사례를 찾아가는 사제동행'에서 은하수학교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하수학교는 청소년이 배움의 공간의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주도하고, 길잡이교사와 마을 기관이 협력하는 인천청소년자유학교다. 간담회는 은하수학교 청소년들이 3년간 직접 기획하고 완성한 공간 '은하수실'에서 개최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대로 성장하는 것이 미래역량"이라며 "질문이 중요한 시대인만큼 학생 자치활동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고 싶은 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공간으로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시의회 문화복지위, 문화·관광지 점검 소통

제물포구락부 등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득)가 지역 내 문화·관광지를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지역현안을 살피고자 구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愛)집, 인천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천시티투어(무의도 테마노선) 등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인천시의 주요 관광거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화·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이뤄졌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구제물포구락부'는 제물포항 개항과 함께 지난 1901년 인천거주 외국인들이 사교모임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한국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격동과 애환을 겪었다.

또 121년을 인천시민과 함께해온 인천 개항장의 숨은 보석으로, 2007년 복원을 거쳐 현재 스토리텔링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민애집'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일본식 가옥으로, 광복 후에 레스토랑 사교클럽으로 이용되다 1966년 한옥으로 개조해 인천시장 관사, 인천역사자료관(시사편찬위원회) 등으로 쓰이다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21년부터 인천의 역사를 품고 있는 역사자료관과 문화적 교류를 위한 다용도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평일과 주말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거듭난 장소이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재개한 '인천시티투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송도 센트럴파크~인천공항을 오가는 순환형 바다노선과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를 운행하는 레트로노선, 섬과 바다를 둘러볼 수 있는 테마형 노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접근성이 한층 개선된 무의도 테마노선을 선택해 둘러보고, 시티투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체크와 운영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김종득 위원장은 "앞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을 찾아올 때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장소가 되도록 현장 종사자 분들이 좋은 인상을 남겨달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시의회 문화복지위가 제물포구락부 등 문화·관광지 점검 현장 관계자와 소통을 가졌다. (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강화군, 치매조기 발견·인식개선

마을경로당서 찾아가는 인지건강 서비스

인천 강화군이 마을경로당서 찾아가는 인지건강 서비스를 추진했다. (사진: 인천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치매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 위해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인지 선별검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인지건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인지 선별검사는 치매 증상인 인지저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 등 검사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이를 꺼려 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이에 지난 14일 그랜드빌(갑곶6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이 편견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기에 발견된 치매는 약물복용과 관리로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어 뒤늦게 발견된 치매보다 최종적으로 적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든다. 이에 주기적인 인지 선별검사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1맞춤형 사례관리, 위치 추적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천호 군수는 "치매인지 선별검사를 원해도 이동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라며,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이번 방문 검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방문 희망 경로당은 상시 모집할 예정이며, 문의는 강화군 치매안심센터(☎ 032-930-4027)에서 가능하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스스로 마음껏 표현하고 꿈 펼치는 시간 되길"

서구, 어린이참여위원 62명 위촉 활동 시작

정례회의 정책 제안·아동권리 홍보캠페인 참여

인천 서구가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참여기구 '제6기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서구는 18일 어린이 위원 62명을 위촉하는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6기 어린이참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6기 위원회는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개모집과 추천제를 병행해 총 6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아동권리 홍보캠페인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 6기를 맞은 어린이참여위원회는 정책제언 활동과 인권옹호 캠페인 활동을 해왔으며 옐로카펫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금연 구역 지정 등 정책 제안이 실제 서구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선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에 대한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위촉식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린이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며 강하고 단단한 하나의 팀이 되길 바란다"며 "스스로를 마음껏 표현하고 꿈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용희 기자 kangyh6240@naver.com

편집·정다정 기자